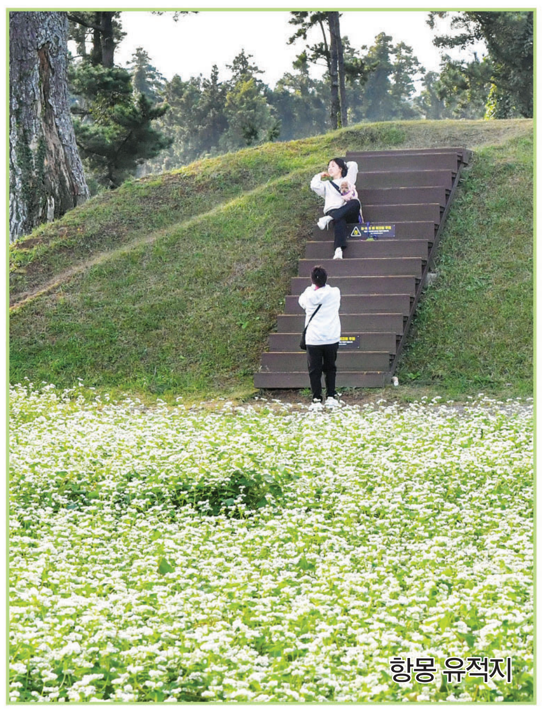
메밀밭 사이로 … 소설 속을 걷다

제주 메밀꽃 명소

흔히 메밀 하면 강원도 봉평을 떠올리지만, 실제 국내 메밀 재배 면적과 생산량 1위는 제주특별자치도다.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제주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메밀을 심고 수확할 수 있어, 재배 주기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다. 5월과 6월, 제주의 메밀꽃 시즌을 맞아 제주 명소를 추천해본다.

성읍민속마을


항몽 유적지

오라동 메밀밭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 메밀밭에 관광객들이 활짝 핀 메밀꽃 사이를 산책하며 여유로움을 만끽 하고 있다.

◇ 와흘 봄 메밀문화 축제

제주의 늦봄을 가장 먼저 메밀꽃으로 수놓는 곳.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는 '자청비 와흘 봄 메밀문화축제'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들녘 가득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과 함께 제주의 전통 먹거리,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마을형 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은 조천읍 남조로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곳에선 와흘산 메밀을 활용한 직판장 운영은 물론, 메밀묵·빙떡·기름떡 같은 토속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먹거리 장터 외에도 메밀체험, 목줄 만들기, 부채 꾸미기, 기념품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과 음악회도 펼쳐진다.

또한 메밀밭 산책로와 밭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존도 자리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천읍·오라동·표선 등 여름에 핀 눈송이 순백의 메밀꽃밭, 청보리 등 어울려 장관

메밀 체험·먹거리 장터·기념품 제작 등 6월까지 곳곳에서 축제…자연의 정취 그윽

◇ 오라동, 청보리밭과 어우러진 순백의 메밀꽃

바람이 불면 초록빛 청보리 물결 사이로 흰 메밀꽃이 고개를 내민다. 초여름의 제주 오라동 들판은 두 색의 조화로 더욱 서정적인 풍경을 만든다. 푸른 보리가 뿜어내는 싱그러움과 메밀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뒤섞이며, 걷는 이들의 발걸음에 자연이 말을 건다.

'2025 메밀꽃오라 with 청보리밭'은 오라2동 산 76번지 일대 들녘에서 지난 2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축제의 핵심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걷고 바라보는 것이다. 따로 무대를 차리지 않고, 길 위에서 풍경과 계절이 직접 공연을 펼친다. 행사장 중심에는 왕복 약 1.5㎞ 길이의 비포장 산책로가 펼쳐진다. 걷는 내내 흙 내음과 바람결이 전해지고 이따금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로 알려진 들판이 시야에 들어온다.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관광객도 도민도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 축제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 제주 메밀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는 장이기도 하다. 메밀꽃은 줄기·껍질·알맹이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원으로 식재료, 베개 충전재, 친환경 농업자재, 심지어 사료로도 활용된다. 이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제주에서 가장 넓은 메밀밭 중 하나인 이곳을 농촌 융복합 공간으로 개방한 것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간단한 메밀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나, 대규모 장터는 운영되지 않는다. 주 목적은 자연 그 자체다.

절정은 이달 20일 전후다. 이 시기에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축제 장소는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되고 있다. 메밀밭을 배경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 문의가 이어지며, 제주 메밀밭의 경관 가치는 문화 콘텐츠 자산으로도 성장 중이다.

◇ 하얀 들녘 위 10년의 기억, 보름왓 메밀밭

서귀포시 표선면 보름왓에서도 메밀꽃이 하얗게 물들기 시작하면 작은 축제가 열린다. 정확히는 축제라기보다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농장을 개방해 사람들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메밀밭 산책과 소규모 체험이 이뤄진다.

보름왓 메밀밭은 개인 농장이 직접 운영하는 장소로, 주말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깡통열차 체험과 소규모 공연이 진행되기도 한다.

산책로는 일반적인 조성된 길이 아닌, 메밀꽃이 피어 있는 밭 사이의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다.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 부지 면적은 약 33만579㎡에 달하며 계절마다 대파, 수국, 메밀, 맨드라미 등 다양한 꽃들이 이어지는 사계절 농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수국의 개화기도 맞이해 메밀과 수국의 감미로운 느낌을 두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장 내에는 직접 운영하는 로스터리 카페가 있어 메밀로 만든 스콘과 초콜릿, 음료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메밀 껍질을 활용한 베개 제작이나 초콜릿 생산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초콜릿은 농장에서 직접 수입한 카카오를 활용해 가마솥에 볶는 과정부터 포장까지 모두 공개되며, 세계 최초로 메밀 초콜릿을 선보인 곳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5월 30일,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그림책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기대도 크다.

◇ 한라산 아래 첫 마을, 메밀꽃이 부르는 느린 초여름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광평리 메밀꽃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형 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꽃과 사람, 바람이 어우러진다. 이곳 광평리는 '한라산 아래 첫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만큼 오래된 전통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번 축제는 그런 마을의 자부심을 드러내듯, 정형화된 개회식 대신 국악 공연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유쾌한 길놀이 퍼레이드'로 문을 연다.

방문객과 도민이 한데 어우러져 걷는 이 퍼레이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마을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무대 공연은 메밀꽃밭 사이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광평리의 소박한 정취를 살린다. 또 메밀 비누·염색·파우치 만들기·그림 그리기·머리핀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메밀면 뽑기와 빙떡·가래떡 만들기, 메밀 초코크런치 제작 등 먹거리 체험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광평리 메밀꽃 축제는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주최하고 있다.주차는 현재 마을회관 인근 공터를 활용할 계획이며, 행사 홍보는 SNS를 중심으로 지역 방송사 광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글=제주일보 조병관 기자·사진=고봉수 기자